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THE PREMIUM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교실 뒤편을 가리키며) 여러분, 저기를 보시죠! (청중이 뒤를 돌아본 뒤) 여러분이 벗어놓은 저 수많은 '레인부츠'들 행렬이 보이시지요? 최근 유행인 레인부츠는 비싼 가격에도 많은 사람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인부츠가 유행하지 않았어도 신고 다녔을 것 같나요? (청중들이 고개를 좌우로 젓자) 네,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다시 말해 경제 주체가 사회 현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심리적 태도를 '밴드왜건 효과'라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시죠! 밴드왜건 효과는 서부 개척 시대의 미국에서 시작된 말로, '밴드왜건'은 곡예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를 일컫습니다. (청중의 질문을 듣고) 아!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악대차를 따라 어느 가족이 서부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함께 악대차를 따라가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수를 한 번 치고) 이제 솔로몬 애쉬의 사회심리학 실험을 통해 집단에서 나타나는 밴드왜건 효과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애쉬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누가 봐도 답이 뻔한 문제를 내고, 실험 대상의 대답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피실험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오답을 대답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고, 실험 과정에서 피실험자가 이들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해두었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피실험자 중 몇 명이나 정답을 맞혔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도 비슷하게 예상했었는데요, 메타심리학 학회지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76%의 피실험자들이 자신이 틀렸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오답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군중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 주체를 보면 외부 정보에 쉽게 현혹될 사람이 없어 보여도, 집단 차원으로 확장되면 경제 주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주체적 판단 능력을 잃게 할 수 있으니,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대답에 긍정을 표하고 있다.
- ② 발표 중간 중간에 질문을 던져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발표의 도입부에 특정 행동을 요구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⑤ 실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심 화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 전에 세운 계획이다. 발표 후에 ㉠~㉥의 실행 방식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 계획]

-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활용한다. ㉠
- 밴드왜건 효과의 개념을 설명한다. ㉡
- 밴드왜건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 밴드왜건 효과의 예를 다양하게 든다. ㉣
- 발표 대상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한다. ㉤

- ① ㉠: 도입부에서 청중들과의 공통 경험을 발표 동기로 연결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 ② ㉡: 청중의 질문을 예상하여 밴드왜건 효과의 개념을 용어의 유래와 함께 설명했다.
- ③ ㉢: 밴드왜건 효과가 생기는 이유를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을 바탕으로 제시했다.
- ④ ㉣: 경제 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다른 분야에 나타나는 사례도 덧붙여 개념을 뒷받침했다.
- ⑤ ㉤: 정보 전달에 그쳤을 뿐, 밴드왜건 현상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언급하지 않아 계획에 어긋났다.

37.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다음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1: 유행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차별화를 위해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현상은 없는지 찾아봐야겠어.

학생 2: 정치 분야에도 '대세론'이라고 일이 진행되는 형세를 따라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경제 활동이든 공동체의 미래든 대세에 치우쳐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니,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 ①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자신의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들었다.
- ②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며 들었다.
- ③ '학생 1'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다룬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며 들었다.
- ④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밴드왜건 효과의 순기능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⑤ '학생 2'는 밴드왜건 효과가 적용되는 분야를 확장하면서 평소 자신의 습관을 성찰하며 들었다.